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음 10월 4일) 제19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고창서 AI 또 발생... 당국, 확산방지 총력

▶ 이낙연 총리와 방역대책 마련

“위기경보단계 격상 등 필요요치 신속 시행해야”

송 지사, 시군 대책회의서 계열사 책임의식 강화 지역 맞춤형 방역 강조

송하진 도지사는 고창군 흥덕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두수 12천수)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20일,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 후 관련 실국장과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고창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과 관련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위기경보단계 격상, 중앙사수소속본부 설치 등의 필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확실한 방역태세를 갖춰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 “이번 사태를 전북도내 전체적인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미 9개 기능별로 비상소집을 실시해 재대응을 운영하고 있는



고창 AI확진과 관련 20일 오전8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사진 오른쪽)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방역대책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사태를 전라북도 전체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미 9개 기능별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계열사까지 포함한 농가전체의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태”라며 “전북 도내 계열사까지 포함한 농가별로 방역교육, 방역실태점검 등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에 이어 도내 시군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철지(실국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등 운영 및 근무자 안전관리 철지, 철쇄도래지 및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 철지,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처분 인력 등 고



위험군 사후관리 및 예방대책 철지를 당부했다.

특히 계열사의 책임의식 강화 및 가금전담공무원 예찰의 철저한 운영, 지역 맞춤형 방역추진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가금 사육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및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희망2018나눔 성금 모금 본격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캠페인 출범식 목표액 74여억원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일 희망2018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캠페인 구호를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로 정하고, 목표액을 74억610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모금액 73억1400여만원보다 2% 많은 금액이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오는 2018년 1월31일까지다.

도내 방송사, 신문사, 주민센터 등에서 성금을 접수한다.

성금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희망나눔캠페인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시 종합경기장 사거리리에 설치해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라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 남부권역 주민들 건강한 여가활동 보장 | 시,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착수

전주시 남부권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육구에 부응하고,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12월까지 체육진흥기금 30억과 지방비 80억원 등 총 사업비 110억이 투입돼 완산구 평화동 2가 322-1번지 일원 1만1,799㎡부지에 지하1층과 지상2층, 연면적 2,895㎡로 건립되며,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농구장, 족구장 등 실외체육시설로 구분해 들어설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 건물 1층에는 체육관과 체력측정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2층은 체력단련실과 에어로빅실, 주민문화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이 부족한 전주 남부생활권 주민들의 육구가 해소돼,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권 곳곳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평소 마땅한 공간이 없어 체육활동을 즐기기가 어려웠던 장애인들을 위해 송천동 인라인롤러장 인근 4만6,138㎡ 부지에 국민체육기금 50억원 등 총 90억원을 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주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내년 6월까지 룬볼링장(1층)과 다목적체육관(2층) 등을 갖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또 내년 5월까지 완산생활체육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의 사무실과 구조물을 증축하고,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완산수영장과 완산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경륜장 등 도 내 10월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에 앞서 시설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아중체련공원과 덕진체련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7곳의 바닥재를 교체하고, △덕진수영장 샤워실

확장 △생활체육 숲내 야구장 시설 확충 △덕진구 게이트볼장 구조보강 및 잔디교체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평화동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평화동 등 남부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육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시,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착수
사업비 110억 투입 내년 12월 마무리

YS 서거 2주기... 내일 추모식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과 고인의 묘소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추모식에는 손명순 여사와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를 포함한 유가족과 정관계 인사·추모객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인사말, 추모사, 추모예배, 추모영상 상영 및 공연, 헌화헌향 등으로 진행된다. /뉴스

장수사과

해발 430m이상의 고령지 분지에서 재배되어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할 뿐 아니라 육질이 아삭아삭한 고품질 장수사과

장수물 MALL

www.장수물.com